



경기침체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27회 화랑미술제' 부산의 매출액이 크게 줄었다. 사진은 지난 23일 막을 내린 이 행사를 찾은 관람객들이 작품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화단의 봄

미술계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 지역 화랑가에서 작품 판매가 끊기고, 국내 대표 아트페어의 판매량도 절반 가량 떨어졌다.

이 때문에 작품 구입에 부담감을 느낀 컬렉터들이 중저가 작품과 현대미술에 비해 저 평가되고 있는 고미술품에 눈을 돌리고 있는 등 미술계의 판도도 변하고 있다.

특히 유명 작가들의 작품가는 하향조정됐지만 신세대 작가들의 작품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미술시장이 실수요자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중저가·고미술품 팬다

화랑가 불황 속 한국화 등 50만~100만원대 작품 두각

화랑협회는 25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제27회 화랑미술제-부산(19~23일)의 매출액이 지난해 7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 32억 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랑미술제는 국내 80개 화랑에서 3천여 점의 작품을 전시·판매했고, 관람객은 총 2만4천813명으로 지난해보다 3천208명 증가했다.

하지만 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다. 당시 화랑협회는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50억원대 매출을 예상했지만 컬렉터들이 주머니를 닫아 목표치를 제우지 못했다.

유명 작가의 고가 작품보다는 성장이 기대되는 젊은 작가들의 중·저가 작품 위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에서도 나인갤러리가 참여해 한희원, 박태후, 박수만, 최재영, 손봉채, 고근호, 신양호, 김진희, 오혜경, 이이남, 주대희, 조근호, 주홍씨 등 13명의 작품을 출품했다. 이들은 그나마 신선한 기법과 예술성을 인정받아 모두 7점을 판매, 2천200여점 판매액을 기록했다.

현대 미술이 주를 이룬 화랑미술제와는 달리 고미술, 한국화를 찾는 소장가들의 움직임은 늘고 있다.

전주에 본사를 둔 에이옥션의 3월 온라인 경매에 출품된 130점 중 73점이 낙찰돼 56%의 낙찰률을 기록했다. 높대야, 현관, 서간 등에 응찰

자들이 몰렸고 문인화, 서예, 병풍 등의 작품도 50~100만원대에 판매됐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최성중의 '누드' 등 현대 미술품들은 유찰됐다.

또 고미술 전문 경매회사인 아이옥션의 '3월 메이저 경매'에서 출품작 169점 중 71%인 120점이 낙찰됐다. 이 같은 낙찰률은 이 회사의 지난해 11월 경매 때의 57.3%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다.

나인갤러리 양승찬관장은 "이탈리아 디자이너 베르사체 컬렉션 경매에서도 고미술에 대한 관심은 높았다"면서 "경기침체 속에서 현대 미술 중심이었던 한국 미술시장도 그동안 저평가됐던 고미술, 한국화 등이 서서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이강하전' 큐레이터와 대화

27일 상록전시관·관람객에 도록 증정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분관장 장경화·사진)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고 이강하 화백의 추모 1주기 회고전을 전시 기획자가 직접 설명해주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갖는

다.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장경화 분관장이 강사로 나서 이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 이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도록과 포스터를 증정한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태계한 서양화가 이 화백의 유작과 미발표작, 대표작 등 90여 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369-351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카데미 수상·후보작들 인기몰이

'레볼루셔너리 로드' '굿바이' 등 6편 상영

'슬럼독 밀리어네어' 일주일만에 35만 동원

2009 아카데미 수상작과 후보작들이 관객들에게 좋은 평을 얻으며 인기를 모고 있다.

지난해 수상작이었던 '노인의 나라는 없다', '데어 월 비 블러드' 등이 한국 관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지 못했던 데 비해 올해 수상·후보작들은 다양한 소재로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슬럼독 밀리어네어', '더 리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와이드 개봉했으며 '레볼루셔너리 로드'(사진), 킬러들의 도시', '굿바이'는 광주극장에서만 단관 상영중이다.

작품상·감독상 등 아카데미 8개 부문을 휩쓸은 '슬럼독 밀리어네어'는 인도 빈민가 출신의 18살 주인공이 미국 퀴즈쇼 우승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19일 개봉후 35만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이번주 예매 순위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케이트 윈슬렛에게 여우주연상을 안긴 '더 리더-책 읽어주는 남자'도 예매 순위에서 2위를 차지, 흥행을 예감케 하고 있다. 26일 개봉한 '더 리더'는 베른하르트 슬링크의 동명 원작을 영화로 옮긴 작품. 제 2차 세계대전의 상처를 안고 있는 36 살 여성과 15살 소녀의 사랑을 과격적으로 그렸다.

17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장기 상영중인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브래드 피트와 케이트 블란쳇의 연기가 눈길을 끄는 작품이다.

광주극장에서는 3편의 아카데미 관련작품을 만날 수 있다.



타임지 선정 현대 문화 100선에 꼽힌 리처드 에이즈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레볼루셔너리 로드'는 1950년대를 배경으로 결혼 이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한 부부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다.

올 아카데미 3개 부문에 노미네이트됐으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호흡을 맞춘 케이트 윈슬렛은 이 영화로 골든 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아카데미 외국어영상을 수상한 '굿바이'는 2008년 최고의 일본 영화로 선정된 작품이다. 시체를 판에 넣는 일을 납관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굿바이'는 다소 무거운 주제를 위트와 따뜻한 감성으로 표현, 죽음과 인생에 대한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영화다.

아카데미 3개 부문 후보작이자 골든글로브 남우주연상(클린 피셀) 수상작인 '킬러들의 도시'는 독특한 느낌의 킬러 영화로 랄프 파인즈 등이 함께 호흡을 맞췄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기돼지 삼형제' 무대에

꼬까 아동극단 27~28일 서구문화센터

꼬까 아동극단이 어린이 뮤지컬 '아기돼지 삼형제'를 무대에 올린다. 27일~28일 광주서구문화센터.

어린이들에게 인기 높은 동화를 모티프로 한 '아기돼지 삼형제'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분석, 독특한 캐릭터를 완성한 작품이다. 화려한 색감의 무대와 역동적인 춤과 노래, 무대와 객석을 오가는 극의 구성으로 보는 재미를 높였다.

화창한 봄날 각자의 집을 짓기 위해 길을 떠난 돼지 삼형제.



큰 형은 지푸라기로, 욕심많은 둘째는 나무 막대로, 부지런한 막내는 튼튼한 벽돌로 집을 짓는데... 문의 062-952-979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봄향기 부르는 성가 연주회

광주가톨릭합창단 29일 문예회관

광주가톨릭합창단(단장 강영숙)은 29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조현주의 지휘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서 합창단은 테오도르 두보이스의 '그리스도의 마지막 일곱 말씀', 헨델의 '할렐루야', '천지의 창조주' 등 성가를 들려준다.

지난 2003년 창단한 광주가톨릭합창단은 부제·사제 서품 미사, 광주평화방송 10주년 기념미사 등에서 성가 봉헌을 해왔으며 전국종교인연합 한마당 인권예술제, 교구 합창제 등에도 출연했다.



정현주(소프라노), 흥진석(테너), 김제선(바리톤)씨가 솔리스트로 참여하며 광주에서 활동하는 생활 성가 찬양팀인 'Re-feel'이 찬조출연한다. 반주는 백정임씨가 맡았다.

합창단 카페 http://cafe.daum.net/gjccatholicchoir. 문의 062-380-220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강하전' 큐레이터와 대화

27일 상록전시관·관람객에 도록 증정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분관장 장경화·사진)은 오는 27일 오후 3시 고 이강하 화백의 추모 1주기 회고전을 전시 기획자가 직접 설명해주는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갖는

다.

'큐레이터와의 대화'에서는 장경화 분관장이 강사로 나서 이 화백의 삶과 예술세계를 관람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준다. 또 이 행사에 참여한 관람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도록과 포스터를 증정한다.

한편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전시는 지난해 태계한 서양화가 이 화백의 유작과 미발표작, 대표작 등 90여 점을 선보인다. 문의 062-369-351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화안내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민족국사거리 ♥예매 1544-0600

1관 소파홀릭 (12세)	최고급관
2관 주시 (15세)	
3관 더리더 (18세)	
4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세)	
5관 기프트 (15세)	
6관 슬리퍼더슬픈이야기 (15세)/그린 트리뷴 (12세)	
7관 카오스 (15세)	
8관 실종 (18세)	
9관 13일의 금요일 (18세)	

* 이프유 주차장 이용 시 2시간 30분 무료
(단, 영화 관람고지에 한함) : 2시간 30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엔터 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매) 228-2700

1관 구세주2 (15세)	
2관 언더드 (15세)	
3관 웃지맨 (18세)	
4관 작전 (18세)	
5관 드래곤볼 에볼루션 (전체)	
6관 솟버스 (18세)/핸드폰 (18세)	
7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

작전
작전세계의 500여 헌터들 주식전쟁이 시작된다!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특별 주차장 300대 * 금토 심야상영

movies 인기영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한도시영 영화시장 *예매: www.joycbo.com/ 1588-7941
상무점·하남점
콜롬비아 시네마
상무점(상무원룸과 이미트 사이) 하남점(무역회관앞)

1관 기프트 (15세)	
2관 워낭소리 (전체)	
3관 실종 (18세)	
4관 더리더 (18세)	
5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세)	
6관 소파홀릭 (12세)	
7관 카오스 (15세)	
8관 드래곤볼 에볼루션 (전체)	
9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10관 푸시 (15세)	

* 호남 최대 주차장 2층 1000대 상영합니다
1588-7941
1588-7941
* 하미 수영장 2층 5757
* 하미 볼링장 2층 282-0825
* 하미 골프장 251-5080
* 하미 당구장

**고객사랑 고객김동 *www.hanicinema.co.kr/ 1588-8120
하미 시네마**
전대문·하미스포트리克斯 ☎ 287-7777

1관 뉴욕은 언제나 사랑중 (15세)	
2관 푸시 (15세)	
3관 작전 (18세)	
4관 워낭소리 (전체)	
5관 푸시 (15세)	
6관 과속스캔들 (12세)	
7관 키오스 (15세)	
8관 드래곤볼 에볼루션 (전체)	
9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10관 실종 (18세)	

* 500여대 넓은 주차장(3시간 무료) * 2층 매일 실내
* 이동 총판사 & OK 쇼케이스 키드 할인 혜택

세미온 기자 *www.prinuscinema.com/www.jolicinema.co.kr*
제일 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1관 더리더 (18세)	
2관 슬럼독 밀리어네어 (15세)	
3관 13일의 금요일 (18세)	
4관 실종 (18세)	
5관 슬픔보다더슬픈이야기 (15세)	
6관 드래곤볼 에볼루션 (전체)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 무료주차 3시간
(단, 푸시는 2층 1000석) * 일정한 주제 고려에 험